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하악 무치악의 수복 전략 - Overdenture vs All on 4

오 승 환 / 오승환힐링치과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지지 고정식 전체 틀니(implant supported fixed complete denture, ISFCD) 소위 all on 4 라고 일컬어지는 치료 방식은 2000년 초 Dr. Paulo Malo가 제창하고 제시한 이후 서구 유럽이나 북미 유럽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온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의 치료의 한 형태이다. 최근 2019년 술 후 18년까지 추적 조사하여 증례를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 10년 성공률 95%, 18년 성공률 93%에 이르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또한 여러 고려사항들을 준비한다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되었다. 하지만 서구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 습관의 차이에 의하여 많은 기계적 합병증 등이 예상되어 그리 활발하게 시술 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실정에 맞는 알맞은 치료 모달리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저자에 의해 시술 된 all on 4 증례 중 5년 이상 f/u이 가능한 증례들을 모아 합병증 등의 치료 결과를 제시 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나라 환자에 맞는 all on 4 치료 프로토콜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하악에서의 all on 4 증례에서 하악의 overdenture와 비교하여 설명 할 예정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all on 4 치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연구원
- * 미국 오클라호마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방문교수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정교수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 * 현, 오승환힐링치과 원장